<1-1-7>②

대학 글쓰기교육의 현황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2016.12

배재대학교
PAI CHAI UNIVERSITY

케이션 제도와 관리시스템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손혜숙[7]은 한남대학교의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교과목의 운영 상황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과와 상담의 연계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교과목 분반 당 인원이 30명 내외로 조정되어야 하며, 교재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첨삭 조교의 교육과 공통적인 첨삭 기준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본고는 이상에서 간략히 소개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선행 연구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 글쓰기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글쓰기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7) 손혜숙「글쓰기 교과목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 : 한남대학교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교과목을 중심으로」,『대학작문』, 17호, 대학작문학회, 2016, 147-175면.

Ⅱ.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재

1. 전국 대학의 글쓰기 교육 현황

대학의 교양교육이 강화되면서 이전의 교무처 산하의 교양교육‘부’로 존재하던 교양전담부서의 규모도 ‘원’이나 ‘단과대학’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교양 전담부서의 위상이 공고해질수록 해당 대학의 교양 교육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대상은 전국의 4년제 대학 중 교양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원’이나 ‘단과대학’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곳에서 운영하는 기초 글쓰기교육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이다. 조사는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그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전국 4년제 대학 기초 글쓰기 교육 현황

번호	학교이름	교필 글쓰기 교과 현황 (시수)	글쓰기 지원부서/ 비교과 프로그램
1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사고와표현 (2)	글쓰기교실 독서에세이 첨삭 및 상담 주시경 독서에세이대회 한힌샘 책다방
2	가천대학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인문사회 글쓰기1,2 (2) 의료보건 글쓰기1,2 (2) 예술체육 글쓰기1,2 (2) 과학기술 글쓰기1,2 (2) 택 1	가천 토론 배틀 가천인 독후감 대회 가천 유니온 독서토론대회
3	가톨릭대학교 ELP학부대학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2)	처음 쓰는 논문 쓰기 역량기반-글쓰기 워크숍
4	강원대학교 기초교육원	글쓰기와 말하기 (3)	좋은 수업 에세이 공모전
5	건국대학교 교양교육센터	비판적사고와토론 (3) 창조적사고와표현 (3)	글쓰기 클리닉 신입생 글쓰기 이벤트
6	건국대학교(충주) 글로벌소통통섭교육원	사고와 글쓰기 (3)	학습법 특강
7	건양대학교 기초교양교육대학	인문사회계열글쓰기 (2) 자연과학계열글쓰기 (2) 보건의료계열글쓰기 (2) 의료커뮤니케이션 (2) 택 1	독서활동 아테네 학당 기초클리닉경진대회
8	경성대학교 창의인재대학	사고와 표현(2)	

9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글쓰기1 (2) 글쓰기2 (3)	
10	계명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양세미나와 글쓰기 (2)	독후감 경시대회 계명 대학생 토론대회 계명 대학생 글쓰기대회
11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읽기와쓰기 (2) 논술과표현 (2)	
12	광주대학교 교양교육원	생활과 글쓰기 (2) 사고와 표현 (2)	글쓰기 컨설팅 의사소통 방과 후 그룹지도
13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글쓰기 (3)	
14	군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기초글쓰기 (3) 창의적 글쓰기 (3) 발표와 토론 (3)	
15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글쓰기와 말하기 (2)	글쓰기&말하기센터
16	대구대학교 기초교육원	독서와토론 (2)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2) 과학기술문서작성 (2)	글쓰기클리닉
17	대전대학교 H-LAC	글쓰기기초(2) 발표와토론(2) 글쓰기심화 or 비판적 사고(2)	혜와 교양 글쓰기 대회 대전대 토론배틀대회 독서토론대회
18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자기표현적 글쓰기(3) 3교과 논증적 글쓰기(3) 중 실용적 글쓰기(3) 택 1 세계명작세미나(12)	
19	동국대학교(경주) 파라미타칼리지	글쓰기1(3) 글쓰기2(3) 발표와 의사소통(3)	
20	동명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와 의사소통(2)	글쓰기 클리닉
21	동신대학교 Together교육개발원	논리적 말하기(2) 창의적 글쓰기(1)	
22	목원대학교 교양교육원	토론과 글쓰기1(2) 토론과 글쓰기2(2)	글쓰기 클리닉 리딩목원 독서인증 리딩목원독서에세이 대회 목원토론대회
23	목포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글과 소통1 (2) 글과 소통2 (2)	

24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1) 열린 생각과 말하기(1) 고전읽기와 토론(2)	
25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사고와 표현1(2) 사고와 표현2(2)	
26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사고와표현(3)	
27	숙명여자대학교 리더십교양교육원	융합적 사고와 글쓰기(3) 비판적 사고와 토론(3)	숙명토론대회 창의융합에세이 콘테스트
28	순천향대학교 향설나눔대학	사고와표현(2)	
29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3) 창의적 사고와 독서토론(3)	
30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글쓰기(3)	
31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명저읽기와 글쓰기(3)	명저100선 읽기와 토론
32	원광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글쓰기이론과 실제(2) 독서와 토론(2)	후마니타스 장학사업
33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우리말과 글쓰기 (3) 고전읽기와 글쓰기 (3)	이화 에크리
34	인제대학교 기초대학	언어와 표현 (2)	
35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글쓰기이론과 실제 (2)	
36	인하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토론(3)	도(道)우리 글쓰기 클리닉
37	제주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글쓰기 (2) 논리적 사고 (2)	
38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글쓰기1(2) 글쓰기2(2) 창의와 소통(2)	의사소통 클리닉
39	충남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기초글쓰기(2)	R-in 인문학적 글쓰기 특강 Read Me 서평 공모전
40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국어와 작문(3) 글쓰기와 소통(3)	
41	한남대학교 교양융복합대학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3)	글쓰기센터

42	한성대학교 상상력교양교육원	사고와표현1(3) 사고와표현2(3)	첨삭 프로그램, 글쓰기 상담프로그램, 한성인 글쓰기 대회

각 대학별로 개설된 기초 글쓰기 교과목을 분석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초 글쓰기, 전공기반 글쓰기, 기초-심화글쓰기가 바로 그것이다. 각각의 글쓰기 교과목은 해당 교양전담부서의 운영기조에 따라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

기초글쓰기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1학기에 2시수 혹은 3시수의 교과목을 1회성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신입생에게 대학글쓰기가 가진 특이성을 이해시키고, 대학글쓰기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전달함으로써 대학의 공통적인 언어공동체에 적합한 언어양식을 습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마다 추구하는 글쓰기 교육 목표가 상이하므로 그 목표에 따라 학술적 글쓰기 교육을 실시하거나 자기표현 글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전공기반 글쓰기는 1학기에 2시수 혹은 3시수의 기초 글쓰기 교과를 계열별로 구분하여 학생의 전공 영역별 글쓰기를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글쓰기교육은 학술적 글쓰기교육에 훨씬 가까운 형태를 띠며,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 역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학의 학술적 글쓰기의 전략을 익힘으로써 학술적 글쓰기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대학의 심화적인 글쓰기 양식을 익히고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기초-심화 글쓰기는 최소 2학기 이상의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교과목을 순차적으로 수강하도록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글쓰기 교육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글쓰기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기초 글쓰기 교육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학술적 글쓰기로의 능동적 진입이 가능하도록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위의 세 가지 범주에 따른 구분대로 교과목 개설 현황을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학 교과목 개설 현황			
구분	기초글쓰기	전공기반글쓰기	기초-심화 글쓰기
대학 수	17	3	22

대학의 교양 글쓰기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열별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그 차이를 인정하고, 해당 전공 학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글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인

전공기반 글쓰기 교육의 입장이 강화되었다. 이는 분과학문의 특성을 글쓰기 교육에 반영하고, 학술적 지식을 내면화하고 이를 표현하는 데 글쓰기 교육의 목표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학술적 담화공동체의 담론을 익히고 이에 따라 글쓰기를 실천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다시 계열 통합형의 공통 글쓰기 교육을 수강한 뒤 심화 글쓰기 교육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이는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쓰기 교육이 본격적인 학술적 글쓰기 장르로 진입하기 이전에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글쓰기교육이 기초 수준의 교육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사회적, 교육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글쓰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대학 교양 글쓰기 교육은 기초 글쓰기에서 기초-심화 글쓰기 영역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교양교육이 강조되면서 대학마다 글쓰기 교육의 로드맵을 구축하여 기초 글쓰기교육과 심화 글쓰기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글쓰기 클리닉이나 글쓰기교실과 같은 글쓰기 전담부서의 운영이다. 학생들의 글쓰기 교육을 지원할 글쓰기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글쓰기 첨삭 및 상담지도를 지원하는 대학이 많았다. 글쓰기 능력이 대부분의 대학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인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움직임은 그것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대학 글쓰기센터 홈페이지 예시

대학 글쓰기 클리닉의 업무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대학에서 운영하는 공통된 업무는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째, 글쓰기 첨삭 지도
둘　째, 글쓰기 대면 상담 지도
셋　째, 글쓰기 교과 운영 or 글쓰기 교과 지원
넷　째, 글쓰기 관련 특강 및 워크숍 운영
다섯째, 글쓰기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글쓰기 전담부서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소속 전임교원이나 튜터들이 참여하는 첨삭 및 상담지도가 가장 중요한 업무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홈페이지 전면에 상담 신청 탭을 두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글쓰기 전담부서가 대학의 교양 교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한성대학교의 경우 교필 사고와표현 교과목과 연계되어 글쓰기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 활동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역시 교필 글쓰기 1,2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글쓰기센터의 지도를 받도록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다.

위 두 사례는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중앙 대학교의 교양 필수 글쓰기 교과에서 사용되는 교재의 예시이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의 교양 글쓰기 교재는 크게 2개의 분야로 나뉨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신입생 학습자가 학술적 글쓰기 공동체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글쓰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것을 실습하는 교재 구성이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글쓰기1의 교재 목차를 살펴보면 글쓰기 과정이라는 목차 구성을 볼 수 있다. 이 속에는 주제 정하기, 발상하기, 개요 작성, 원고 집필, 문단 쓰기, 문장 쓰기, 어문 규범, 보고서 쓰기와 같은 기초 글쓰기 내용과 더불어 글쓰기2의 교재를 살펴보면 설명문과 논증문의 글쓰기 방법을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명 중앙대학교의 글쓰기 교과는 학술적 글쓰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읽을거리를 풍부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창의적인 사유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글쓰기 교육의 방법에서 정답은 없지만, 이 두 가지 글쓰기 모두 21세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모두 필요한 방법이니만큼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융합한 글쓰기 교재 구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배재대학교 글쓰기 교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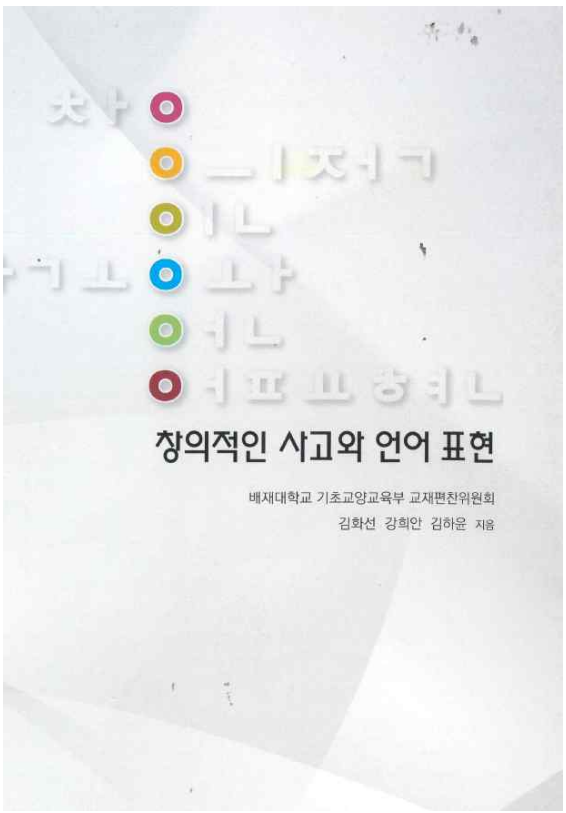
배재대학교에서는 교양 필수, 교양필수선택 영역에서 글쓰기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글쓰기교실이라는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글쓰기 첨삭 및 상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개설된 글쓰기 관련 교과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구분	교과목명	개설학과	학점
교양필수	사고와표현	주시경교양대학	2
교양필수선택	성공취업글쓰기와 토론	주시경교양대학	2

교양필수 영역인 <사고와 표현>은 본교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글쓰기 교과목으로 학술적 글쓰기 및 자기표현 글쓰기를 실습을 중심으로 배우고 있다. 해당 교과목의 교재는 <창의적인 사고와 언어 표현>이라는 제목이며, 교재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사고와표현> 교재 표지 및 목차



<목차>

Ⅰ. 창의적인 사고와 글쓰기
1. 연상훈련
2. 표현력 기르기
Ⅱ. 글쓰기의 기초와 실제
1. 우리말 바로 쓰기
2. 좋은 글의 원리와 전개 방식
3. 시작하기와 마무리하기
Ⅲ. 실용적 글쓰기
1. ‘나’를 소개하는 글쓰기
2. 보고서 쓰기

목차에서 알 수 있듯 <사고와표현>의 교재는 글을 쓰기 위한 사고력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장에서 시작하여 글쓰기의 기초를 익히고, 이를 토대로 실용적 글쓰기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와표현> 강좌의 교재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 글쓰기 교육을 위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래 글쓰기는 '읽고 이해하고 쓰는 과정'이 하나의 순환고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글을 쓰기 전에 사고력을 자극하고 대학인의 글쓰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글쓰기 규칙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대학인이 갖추어야 할 실용적 글쓰기 부분은 자기표현 글쓰기와 보고서 쓰기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대학의 학술적 담화공동체의 일원으로 담화 규칙을 내면화하는 한편, 사유하는 적극적 글쓰기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이중의 전이를 실현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고와표현>은 수강 인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학습자의 학업 성취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고와표현>은 배재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수강하는 기초교양 글쓰기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학습에 있어서의 집중도와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실질적인 피드백이 중요하고 이의 효과를 위해서 수강 인원을 축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글쓰기 교육의 특성 상 수업을 듣는 수강생의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학업의 성취수준은 높아지게 된다.

<사고와표현>은 학습자와 교수자가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면서 학습 효율을 높이고 그 결과로 학습자 스스로가 대학의 학술공동체에 적합한 언어 규범을 익히게 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글쓰기를 익히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자기표현능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글쓰기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함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독서에세이 한 편을 작성하게 되는데, <사고와표현> 강의를 통해 습득한 새로운 언어규범을 바탕으로,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적인 형태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독서에세이 작성의 목표이다. <사고와표현> 수강생이 독서에세이를 작성하면 재학생 선배가 인터넷 시스템으로 튜터 역할을 수행하며 신입생의 독서에세이에 대해 조언하고 글을 첨삭해준다. 글쓰기 튜터의 조언을 참고하여 학생은 자신이 쓴 독서에세이를 다시 수정하고, 수정한 독서에세이를 <사고와표현> 담당 교수자에게 제출한다. 교수자는 학생이 수정한 글을 첨삭하고 대면지도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독서에세이 쓰기를 마무리한다. 이때 튜터의 조언은 <사고와표현> 수강생의 자율적인 퇴고과정을 돕기 위한 역할을 한다.

학습자는 학습의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에서 학습자가 온전히 주체성을 가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독서에세이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교수자가 직접 그에 대한 첨삭과 조언을 행한다면 그것은 학습자의 주체적인 퇴고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 교수자의 첨삭과 조언은 학습자에게는 일종의 명령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재대학교에서는 튜터 시스템을 개발·시행 중

이다. 튜터 시스템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방학 2주간의 오프라인 집중 교육, 6주간의 온라인 교육, 학기 내 지속적인 글쓰기 교육을 심도 있게 교육한 뒤, 신입생 학습자들에게 글쓰기 전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직접적으로 첨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학습자 스스로 주체적인 글쓰기 과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튜터 시스템의 목표이다. 튜터가 제공하는 첨삭 형태의 조언은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재대학교의 교양필수선택 교과인 <성공취업글쓰기와토론>은 창업실무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3,4학년 전용 글쓰기 심화 과목이다. 이 교과목에서는 지속 가능한 글쓰기 능력 향상을 목표로 보고서(기획서) 쓰기, 자기소개서 쓰기, 논리적 글쓰기 등 사회 진출을 앞둔 학부생들이 취업 역량을 실제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단순히 글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과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 조정 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토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실제적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실무에 쓰일 수 있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강화는 심화 글쓰기교육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각 전공 교과에 접합하여 쓰일 수 있는 글쓰기교육은 기초 글쓰기교육을 이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글쓰기 방법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개발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의 글쓰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성공취업글쓰기와토론>은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기초영역과 심화영역의 균형 잡힌 글쓰기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학습이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배재대학교는 이러한 시스템을 교과는 물론, 글쓰기와 연계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구성해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강의의 내용을 강화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글쓰기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긍정적인 순환 시스템을 개발·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3. 글쓰기교실 독서에세이 쓰기 프로그램[8)]

배재대학교는 2014년 3월 교양대학 내 <글쓰기교실>을 개소하여 현재까지 3년째 운영중이다. 글쓰기교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교필 <사고와표현>과 연계된 '독서에세이 쓰기' 프로그램이다. '독서에세이 쓰기'는 학습자가 한 권의 책을 읽고 사고한 바를 솔직하게 서술하는 글쓰기로 학습자의 체험 및 생각을 중점적으로 쓰기를 요구한다.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 독서 경험 확대, 자기 효능감 강화 등 여러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8) 이희영, 「대학 교양교육 현장에서의 '독서에세이 쓰기' 프로그램 연구」, 『교양교육연구』 10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513-541 참조.

학생들로 하여금 1번 이상의 성공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의 성공 경험이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대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독서에세이 쓰기' 프로그램이 대학 교양 글쓰기가 담당하고 책무인 '이중의 전이'의 시작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 독서에세이 쓰기 프로그램 운영안

2014년 1학기 '독서에세이 쓰기' 프로그램이 처음 운영될 당시 운영안은 매우 단순했다. 교양 필수과목인 <사고와표현> 수강생들에게 교수자가 독서에세이 과제를 부여하면 학생들이 책을 읽고 독서 에세이를 작성하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글쓰기교실에 제출한다. 그리고 그 과제는 튜터가 확인하고 첨삭을 진행한 뒤 다시 업로드한다. 그러면 학생은 첨삭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첨삭을 참고하여 독서에세이를 수정하고, 완성본은 교수자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 방법은 매우 간단해보였지만 업무량은 상당했다. <사고와표현>의 경우 한 학기에 1,000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하는데,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한 명의 튜터가 한 학기에 100장 이상의 첨삭을 해야 했다. 이러한 가중한 업무보다 더욱 큰 문제는 양질의 첨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었다.

글쓰기교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독서에세이 운영안에 보완 절차를 강구하여 현재의 '독서에세이 쓰기' 로드맵을 개발하였다.

<독서에세이 쓰기 로드맵>

교수	학생	튜터	학생	교수	학생
① 독서에세이 과제 부여	→ ② 독서에세이 쓰기	→ ③ 독서에세이 1차 첨삭	→ ② 독서에세이 수정	→ ② 독서에세이 2차 첨삭	→ ② 독서에세이 최종 수정 ④

독서에세이 쓰기 로드맵에서 보완된 부분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독서에세이 작성 공통 교육안 마련 및 보조교재 제작, 둘째, 글쓰기 대면 상담제도 구축, 셋째, 튜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넷째, 독서에세이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바로 그것이다.

2) 독서에세이 작성 교육안 마련 및 보조교재 제작[9)]

2014년 ‘독서에세이 쓰기’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당시 이 프로그램은 교필 <사고와표현>의 1회성 과제라는 의미가 강했다. 당시 학생들이 제출한 독서에세이는 동기, 줄거리, 소감 순으로 구성되는 천편일률적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튜터들의 첨삭 역시 문법적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형식적 첨삭에 그쳤다. 그 결과 <사고와표현> 교수진과 글쓰기교실 운영진은 ‘독서에세이 쓰기’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은 물론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독서에세이 쓰기’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 목표부터 첨삭 방향까지 재설정하였는데, 이 때 재설정한 목표 및 첨삭 방향은 아래와 같다.

■ ‘독서에세이 쓰기’ 목표
1) 지적 사유 경험을 통한 학생의 내적 성장
2) 창의적 사고 및 표현 능력 향상을 통한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강화
3) 문제해결적 글쓰기를 통한 학생의 글쓰기 성공 경험

■ 튜터의 자세 및 첨삭 방향
1) 튜터는 학습자의 글을 평가하지 않는다.
2) 튜터는 첨삭 과정에서 성실한 독자의 자세를 견지한다.
3) 튜터는 학습자와 학문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글을 쓰는 동반자로 기능한다.
4) 튜터의 첨삭은 경청(정독), 공감, 존중을 기반으로 하며, 발전방향을 반드시 제안해야 한다.
5) 문법적 오류는 교정부호로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학습자가 스스로 고쳐보길 권한다.

이러한 목표를 설정한 뒤 가장 먼저 변화를 준 것은 ‘독서에세이 쓰기’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2014년 1학기에는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도서목록을 제공하고 독서에세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간단한 안내로 과제를 부여했지만, 2014년 2학기부터는 <사고와표현> 1주차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독서에세이 쓰기’ 과제가 가지고 있는 의의와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책 전체의 줄거리와 단순 소감을 쓰는 것을 지양해야하며, 책의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한 후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독서에세이가 반복되는 고쳐 쓰기를 통한 발전적 글쓰기 과정임을 강조하고, 첨삭 역시 고쳐 쓰기 과정의 일부임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글쓰기 동료로 글쓰기 튜터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성실한 독자에 상응하는 성실한 작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독서에세이 쓰기’ 프로그램의 분명한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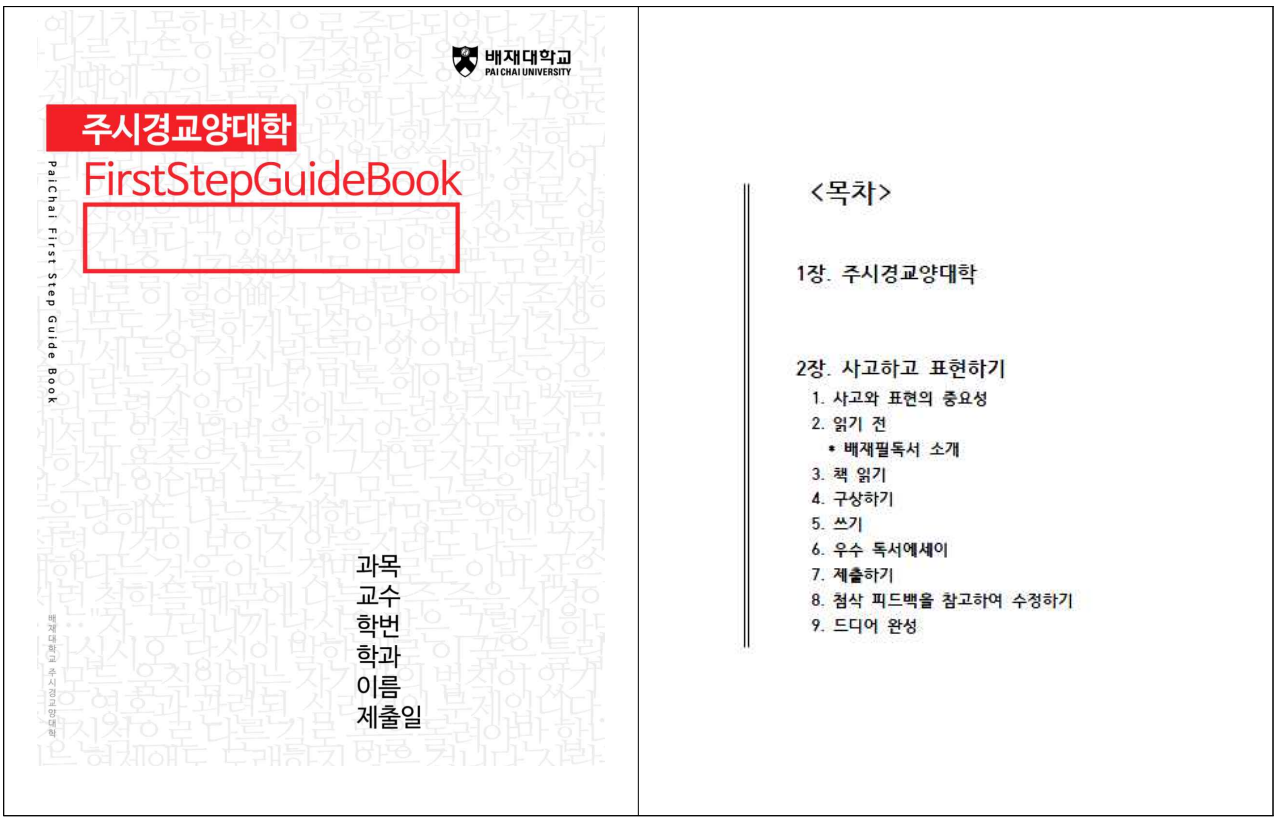
9) 2.1.1.는 상단의 <독서에세이 쓰기 로드맵>에서 ①에 해당하는 논의이다.

표를 설명하고 그 가치를 공유한 결과 학습자의 글쓰기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고민한 것은 한 편의 글을 쓰는 체계적인 과정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주 1회 2시간밖에 되지 않는 <사고와표현> 수업시간을 모두 '독서에세이 쓰기'에만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찾아낸 방법은 보조교재의 제작이었다. 독서에세이 쓰기의 모든 과정을 교수자가 지도해줄 수 없다면 학생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안내서가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합의하였다.

독서에세이 작성 보조교재의 이름은 『First Step Guide Book』으로 2014년 2학기에 집필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용되었다. 교재를 집필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교재의 내용이 학습자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재를 구어체로 집필하였으며, 글쓰기 이론보다는 독서에세이 쓰기의 구체적 방법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독서에세이 쓰기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양을 활동지를 수록하여 보조교재가 워크북의 기능을 겸할 수 있게 하였다.

독서에세이 보조교재 『First Step Guide Book』 표지 및 목차



『First Step Guide Book』의 구성은 크게 쓰기(읽기) 전, 쓰기(읽기), 쓰기 후 단계로 나뉜다. 쓰기 전 단계에서는 글쓰기교실의 추천도서목록을 소개하고, 학습자의 관심사나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공을 들인 부분은 추천도서 목록 소개로 해당 도서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어떤 전공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 책의 수준은 어떠한지 등을 표시하였다. 또한 각 도서마다 한줄 평을 담아 학습자로 하여금 도서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쓰기(읽기) 전 단계의 활동지로는 독서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책의 표지, 목차, 서지사항 등을 살펴보고 작성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독서에세이 보조교재 『First Step Guide Book』 읽기 전 단계 예시

2. 읽기 전

책을 읽기 전,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죠?? '-'

좋은 책.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직관적인 선택만으로 책이 어려울지 쉬울지, 책의 내용들이 나에게 맞을지 맞지 않을지 가늠하기란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책 고르는 일을 우연에 맡겨버린다면 책을 읽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만큼 지루하고 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고르는 일은 책을 읽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먼저 필독서의 목록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 목록은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주시경교양대학 교수님들이 엄선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기초계열, 인문예체능계열, 이공계열, 상경계열로 나누어 각 20권씩 필독서 목록이 있으니 기초계열과 자신의 전공계열 목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목록을 살펴보고 다음에 드는 책을 몇 권 염두에 두고 해야 할 일은 도서관이나 서점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책을 찾아 살펴보세요.

책을 고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책의 서두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책의 첫 문단을 읽어보고 매력을 느낀다면, 한두 장을 읽어봤는데 그 다음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그 책을 선택하면 됩니다. 책의 서두를 읽는 것은 그 책의 전체적인 인상을 가늠하는 중요한 맛보기입니다. 소개팅을 나가기 전에 상대방의 얼굴사진을 본다거나 카톡을 하며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죠.

두 번째는 집어든 책의 뒤표지에 적힌 간단한 서평을 훑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서평이라고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과도한 칭찬이 적혀있는 경우, 대부분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과 책과 관련한 대화 나누기 또는 인터넷 검색 역시 유용합니다. 하지만 그 것들에 휘둘려서 책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나의 의지로 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2-1. 배재 글쓰기교실 필독서

1) 기초계열

1. 육식의 종말

저자	제레미 리프킨	출판사	시공사
페이지	462	가격	13,000
분야	사회/과학	난이도	★★★★
책 소개	고기 먹는 일에 대한 문제를 파헤치는 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		
추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고 싶은 학생		

2. 소설가의 일

저자	김연수	출판사	문학동네
페이지	264	가격	13,000
분야	문학	난이도	★★★
책 소개	소설가의 신년 독서 계획과 짧은 여행, 크고 작은 만남과 인상 깊게 본 영화 등 사소하고도 다양한 일상들이 녹아 있다.		
추천	일상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싶은 학생		

3. (인생이란 여행길에서 만난) 철학 우화

저자	류관홍	출판사	베이직북스
페이지	229	가격	11,000
분야	철학	난이도	★★
책 소개	소크라테스부터 하이데거까지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중심으로 행복, 자유, 인생의 고통, 신앙, 사회, 죽음에 관한 통찰을 쉽게 풀어내고 있다.		
추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철학적 사고법을 배우고 싶은 이		

4.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융합한 시공간

저자	고미숙	출판사	북드라망
페이지	488	가격	18,000
분야	문학/평론	난이도	★★★★
책 소개	당대의 천재이자 대문호였던 연암 박지원을 웃음과 우정, 노마드의 달인으로 재해석한 책.		
추천	서재에 앉아 머리로 사유하길 거부하는 학생		

2-2. 내가 고른 책, 살펴보기

이번 독서에세이를 기회로 읽을 책을 골랐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책을 살펴봅시다. 먼저 책의 표지를 살펴보세요. 제목과 저자(작가), 출판사 외에 더 적혀있는 문구는 없습니까? 그것은 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힌트이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표지의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그 디자인을 통해 책의 느낌을 유추해볼 수도 있겠죠. 또 책을 넘기다 볼 수 있는 저자나 작가의 소개 역시 책읽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살펴보다보면 책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서 서지사항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고와표현> 과목의 교재를 한 번 살펴봅시다.

창의적인 사고와 언어 표현

- 2014년 2월 28일 초판 인쇄 • 2014년 2월 28일 초판 발행
- 지은이 김희선 강희안 김하윤 • 펴낸이 김창수
- 펴낸 곳 창과현 (100-187) 서울 중구 퇴계로 187
- 전화 02 2278 9097 • 팩스 02 2278 9098
- 이메일 ch153ch@hanmail.net
- 등록번호 제 2-3513호
- ISBN 98-89-920-76-24-1 93800

책 제목을 이름표에 비유할 수 있다면 책의 서지사항은 주민등록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지사항에는 보통 도서명, 저자(작가), 역자, 출판인, 출판사, 초판인쇄일, ISBN번호, 가격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글쓰기를 할 때 책의 내용을 인용한다면 반드시 이 서지사항을 살펴보고 각주를 통해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출처를 밝히는 방법은 저자(작가), 역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를 차례대로 밝히면 됩니다. 만약 우리 교재를 인용한다면 <김희선 외, 『창의적인 사고와 언어 표현』, 창과현, 2014, 4쪽>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고른 책의 서지사항을 살펴보고, 아래를 작성해 봅시다.

<서지사항>

- 제목 :
- 지은이 :
- 옮긴이 :
- 펴낸이 :
- 출판사 :
- 초판 인쇄 :
- 각주 :

무엇보다 빠뜨리지 말고 챙겨 읽어야 할 것은 책의 서문입니다. 대부분의 서문은 저자나 역자가 쓰며 책의 앞 쪽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책의 탄생 배경이나 책의 내용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된 발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두면 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재의 서문을 살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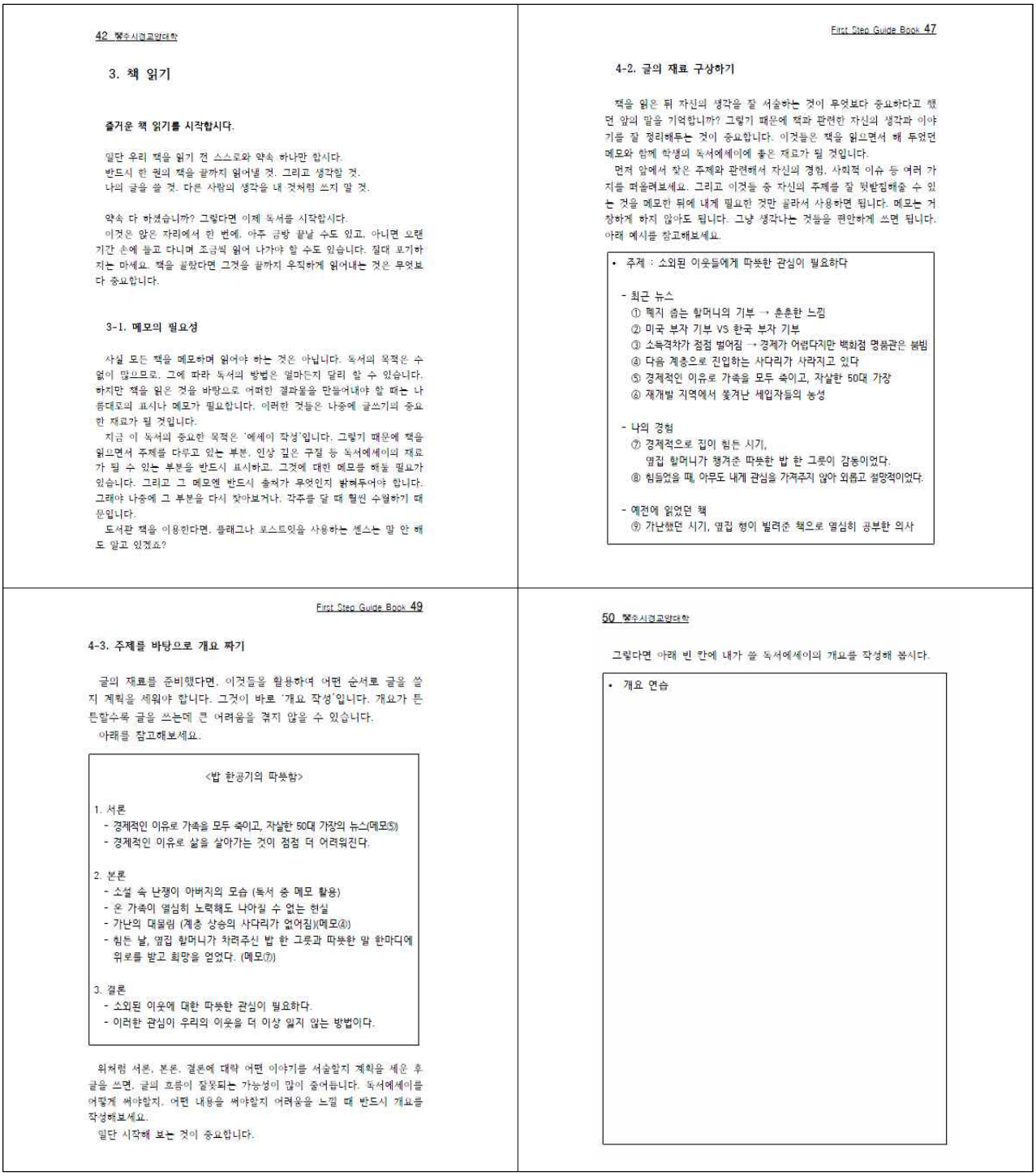
말과 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글을 쓰는 행위는 깊이 있는 성찰과 사색을 전제로 하므로 아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표현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회에 진출하여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고 생각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학생들이 제대로 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쓰기(읽기) 단계는 메모하기, 구상하기, 개요 짜기, 서론 쓰기, 본론 쓰기, 결론 쓰기, 제목 짓기, 퇴고하기의 8단계로 자세히 구분하여 많은 사례와 활동지를 수록하였다. 과정이 복잡하여 글쓰기가 낯선 학습자에게 자칫 지루할 수 있다는 내부적 비판도 있었지만 처음 글을 쓰는 학습자가 일련의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글쓰기를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단 이 과정이 학습자에겐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공감하기에 최대한 쉽고 재미있는 사례를 많이 제시하였다.

독서에세이 보조교재 『First Step Guide Book』 쓰기(읽기) 단계 예시



42 꽃수시경교양대학

3. 책 읽기

즐거운 책 읽기를 시작합시다.

일단 우리 책을 읽기 전 스스로와 약속 하나만 합시다.
반드시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어낼 것. 그리고 생각할 것.
나의 글을 쓸 것.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것처럼 쓰지 말 것.

약속 다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독서를 시작합시다.
이것은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아주 금방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기간 손에 들고 다니며 조금씩 읽어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는 마세요. 책을 골랐다면 그것을 끝까지 우직하게 읽어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1. 메모의 필요성

사실 모든 책을 메모하며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서의 목적은 수없이 많으므로, 그에 따라 독서의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은 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할 때는 나름대로의 표시나 메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글쓰기의 중요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독서의 중요한 목적은 '에세이 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 인상 깊은 구절 등 독서에세이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표시하고, 그것에 대한 메모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엔 반드시 출처가 무엇인지 밝혀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찾아보거나, 각주를 달 때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책을 이용한다면, 플래그나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센스는 말 안 해도 알고 있겠죠?

First Step Guide Book 47

4-2. 글의 재료 구상하기

책을 읽은 뒤 자신의 생각을 잘 서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던 앞의 말을 기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책을 읽으면서 해 두었던 메모와 함께 학생의 독서에세이에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찾은 주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경험, 사회적 이슈 등 여러 가지를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이것들 중 자신의 주제를 잘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을 메모한 뒤에 내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메모는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편안하게 쓰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보세요.

- 주제 :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 최근 뉴스
  ① 폐지 줍는 할머니의 기부 → 훈훈한 느낌
  ② 미국 부자 기부 VS 한국 부자 기부
  ③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짐 → 경제가 어렵다지만 백화점 명품관은 붐빔
  ④ 다음 계층으로 진입하는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
  ⑤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을 모두 죽이고, 자살한 50대 가장
  ⑥ 재개발 지역에서 쫓겨난 세입자들의 농성

- 나의 경험
  ⑦ 경제적으로 집이 힘든 시기,
  옆집 할머니가 챙겨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감동이었다.
  ⑧ 힘들었을 때,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외롭고 절망적이었다.

- 예전에 읽었던 책
  ⑨ 가난했던 시기, 옆집 형이 빌려준 책으로 열심히 공부한 의사

First Step Guide Book 49

4-3. 주제를 바탕으로 개요 짜기

글의 재료를 준비했다면, 이것들을 활용하여 어떤 순서로 글을 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요 작성'입니다. 개요가 튼튼할수록 글을 쓰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밥 한공기의 따뜻함>

1. 서론
   -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을 모두 죽이고, 자살한 50대 가장의 뉴스(메모⑤)
   - 경제적인 이유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2. 본론
   - 소설 속 난쟁이 아버지의 모습 (독서 중 메모 활용)
   - 온 가족이 열심히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는 현실
   - 가난의 대물림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없어짐)(메모②)
   - 힘든 날, 옆집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 한 그릇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었다. (메모⑦)

3. 결론
   -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 이러한 관심이 우리의 이웃을 더 이상 잃지 않는 방법이다.

위처럼 서론, 본론, 결론에 대략 어떤 이야기를 서술할지 계획을 세운 후 글을 쓰면, 글의 흐름이 잘못되는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독서에세이를 어떻게 써야할지, 어떤 내용을 써야할지 어려움을 느낄 때 반드시 개요를 작성해보세요.
일단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0 꽃수시경교양대학

그렇다면 아래 빈 칸에 내가 쓸 독서에세이의 개요를 작성해 봅시다.

- 개요 연습

마지막으로 쓰기 후 단계는 첨삭받기, 또 퇴고하기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글쓰기교실의 첨삭시스템을 소개하고, 첨삭 받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글쓰기교실 첨삭을 바탕으로 글을 다시 퇴고하는 과정에서 능동적 글쓰기 주체로 나아가는 것을 도모하였다.

독서에세이 보조교재 『First Step Guide Book』 쓰기 후 단계 예시

First Step Guide Book 65

5-5. 퇴고하기

내 글의 첫 번째 독자가 되기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글의 첫 번째 독자를 만날 시간입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부터의 시선은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준엄해야 합니다. 주제는 잘 드러나는지, 글의 통일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응집력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문장의 의미 전달은 잘 되고 있는지, 단어나 조사의 쓰임이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등 모든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퇴고는 보통 글의 주제나 흐름과 같은 큰 덩어리부터 시작하여, 단어의 쓰임 하나하나를 보는 작은 덩어리를 보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끊임없는 퇴고를 통해 글쓰기 실력이 끊임없이 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글을 읽고, 자신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길 바랍니다.

> **여기서 중요한 TIP!**
> **퇴고가 어려울 땐 누가 나를 도와주지?**
>
> 1. 글쓰기교실에 상담 요청을 하세요.
> 글쓰기교실은 우리학교 학생들의 글쓰기능력 향상을 위해 언제나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SPU402 / 520-5944)
>
> 2 친구들과 함께 글을 읽어보세요.
>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내 글이 어떻게 보이는 지를 이야기 듣다보면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오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
> 3. 인터넷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하세요.
> 인터넷 맞춤법 검사기를 통해 자신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오류를 많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말 배움터 맞춤법 검사기 : http://speller.cs.pusan.ac.kr)

74 주시경교양대학

7. 제출하기

7-1. 제출은 글쓰기교실 카페를 이용합니다!

완성한 독서에세이는 글쓰기교실 카페(http://cafe.daum.net/paichaiwriting)를 통해 제출합니다. 정해진 날짜 안에 자신이 속한 분반 게시판을 찾아 자신이 쓴 독서에세이를 파일 첨부하여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온 과제들은 글쓰기교실에서 일괄적으로 첨삭을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약 보름 후에 첨삭이 완료된 파일을 다시 업로드 합니다. 학생은 이것을 다운받아 자신의 글을 수정하는데 참고하면 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TIP!**
> **과제 제출시 주의사항**
>
> **① 미리 회원가입하기**
> 우리 카페는 정회원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제출 날짜에 맞춰 늦게 카페에 가입을 했다가 등업이 늦어 과제를 지각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꼭 미리 회원가입을 하고 등업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② 카페 닉네임은 <학과/학번/이름>으로 설정해주세요.**
> 그렇지 않으면 준회원으로 등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독서에세이를 제출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③ 독서에세이 작성은 한컴오피스 한글로 작성해주세요.**
> 글쓰기교실에서의 첨삭은 모두 한컴오피스 한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메모장이나 MS워드로 글을 작성하는 경우 파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④ 파일명은 반드시 <학번/학과/이름>으로 설정해주세요.**
> 매년 글쓰기교실에서 첨삭하는 독서에세이는 2,000여 편이 넘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파일을 다루다보니 언제나 누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글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파일명을 정확하게 설정해주세요.

76 주시경교양대학

첨삭이 완료되면 학생은 오른쪽과 같은 첨삭 파일을 받게 됩니다. 첨삭된 파일에는 교정부호, 메모, 고침표, 총평이 적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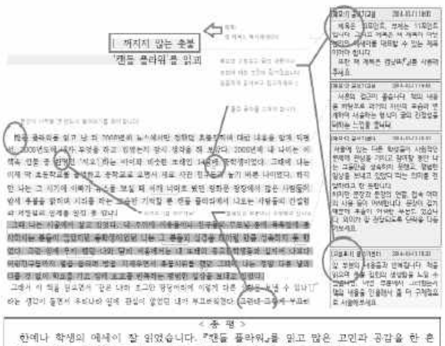
교정부호는 글의 문법적 오류를 바로잡을 때 사용합니다. 때문에 맞춤법의 오류 등이 교정부호를 통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침표는 교정부호로 표시하기 힘든 문법적 오류를 바로 잡을 때 사용합니다. 메모는 글의 내용과 관련한 튜터의 생각을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표현이나 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은 글 전체의 인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글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를 이야기하며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TIP!
자주 쓰이는 교정부호
첨삭지가 빨간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도 상처받지 마세요. 실수를 알았으니 다음부터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는 많이 사용되는 교정부호입니다. 참고한다면 글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

교정부호	기능	교정 전	교정 후
v	사이 띄우기	퇴고는중요한과정입니다.	퇴고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붙이기	퇴 고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퇴고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삭제하기	퇴고는 안 중요한 과정입니다.	퇴고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고치기	퇴고는 준요한 과정입니다.	퇴고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삽입	퇴고는 과정입니다.	퇴고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줄 잇기	퇴고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퇴고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들여쓰기	퇴고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퇴고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줄 바꾸기	퇴고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퇴고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First Step Guide Book 77

8-1. 첨삭본의 예시



< 총 평 >

한예나 학생의 에세이 잘 읽었습니다. 『캔들 플라워』를 읽고 많은 고민과 공감을 한 흔적이 돋보이는 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많이 드러내려고 한 점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갈 때 근거가 약합니다. 『캔들 플라워』는 촛불집회가 가지는 긍정적인 기능에 많이 주목한 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는 소통하지 않는 정부는 부정적으로, 그것에 대항하는 시민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요. 예나 학생은 이러한 작가의 생각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근거를 잘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책의 구체적인 장면을 예로 들면서 '시민들의 이런 모습은 잘못되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라는 예나 학생의 생각을 좀 더 분명하게 서술해보세요.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뒤에 있는 올바른 투쟁을 지지한다는 예나학생의 생각 역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나는 그들을 지지한다.>와 같은 모순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글에 군더더기처럼 불필요한 설명이나, 반복되는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글쓰기 전의 개요 작성이나 글을 다 쓴 뒤의 퇴고 작업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문장력이 아예 없는 학생은 아니니 금방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르기를 '글을 쓰는 것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많은 독서(多讀)와 많은 작문(多作)과 많은 사고(多商量)를 통해 앞으로 더욱 좋은 글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First Step Guide Book』의 이러한 구성은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글쓰기 방법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약간의 변별점이 있다. 인지주의 글쓰기 이론에 따르면 문제해결과정에서의 필자의 글쓰기 행위는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진행되며, 각 과정마다 점검을 거친다. 그리고 이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글쓰기 과정은 끊임없이 회귀하여 글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글이 완성도를 갖추게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글쓰기에 있어 잦은 회귀와 수정의 과정은 글쓴이의 창조적 사고력을 방해하는 비판적 편집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한다. 이러한 글쓰기 끊김 현상은 글쓰기가 낯선 미숙한 필자들에게는 오히려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기에 『First Step Guide Book』은 일련의 과정에 따른 글쓰기를 유도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점검과 수정을 강요하지 않는다. '독서에세이 쓰기'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창의적 사유에 드러나게 글을 쓰는 것과 제출하기 전 단 한 번의 꼼꼼한 퇴고를 거치는 것이다.

『First Step Guide Book』이 제작되어 배부된 2015년 1학기부터 <사고와표현> 교과의 1주차 강의는 글쓰기를 함께 시작하는 출발점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교수자는 『First Step Guide Book』을 활용하여 독서에세이 쓰기 과제를 안내함과 동시에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독서에세이 작성법을 강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강의와 더불어 실습을 겸함으로써 강의의 질이 제고되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First Step Guide Book』이 독서에세이를 작성하기 위해 책을 고르는 일부터 최종적으로 글을 수정하여 완성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안내서로 작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First Step Guide Book』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이후 제출된 독서에세이의 양상을 살펴보면 학생 개인의 사유가 담긴 글이 많아졌으며, 글의 완성도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3) 글쓰기 대면 상담 시스템의 구축[10)]

2014년 글쓰기교실이 개소할 당시 글쓰기 상담은 전임교수 1인이 담당했다. 글쓰기교실 내에 행정 인력이 배치되기 전이었기에 튜터들이 돌아가면서 상담 신청을 받고 상담을 도와주었다. 이러한 인적 인프라의 열악함은 글쓰기 상담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11)]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아쉬움은 쓰기 전(前) 과정의 상담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완성된 글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교수자가 글을 미리 읽고 분석한 뒤, 학습자에게

10) 2.1.2.는 위에 제시된 <독서에세이 쓰기 로드맵>에서 ②에 해당하는 논의이다.

11) 대학에서 운영하는 Writing center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이미 많은 연구자가 지적한 바 있다. 엄성원(2014:465)은 글쓰기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적 인적 자원과 그리고 이러한 인적 자원을 지원할 물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쓰기 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배재대학교 역시 그러한 문제에 공감한다. 그리고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할 방안으로 '독서에세이 쓰기'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다. 훈련된 대학원생과 학부생 튜터 장학생을 활용하여 인적 인프라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글의 구조나 표현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형식의 짧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대면상담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꼭 필요한 대상은 글쓰기에 미숙한 학습자들이다. 이들은 보통 아이디어 구성이나 개요짜기 등과 같은 쓰기 전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는데, 이러한 고민을 누군가가 들어주고 함께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자는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쓰기 전(前) 상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글쓰기에 미숙한 필자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함께 대안을 찾는 과정은 10분이나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재대학교 글쓰기교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14년 2학기부터 1:多로 이루어지던 글쓰기 상담 체계를 1:1 대면 상담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1인의 글쓰기 전임교수에게 부과되었던 상담 업무의 과부하를 해소하고자 교양국어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글쓰기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1:1 대면 상담 시스템이 마련되고, 글쓰기 상담에 참여하는 교수진이 확보되면서 글쓰기교실에서는 쓰기 전(前)단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고, 상담의 질 제고를 위하여 상담시간 역시 15분에서 30분으로 늘렸다. 그 결과 물리적 상담 시간의 부족으로 상담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생겼지만 글쓰기 상담의 만족도는 확연히 높아졌다.

<글쓰기 상담 만족도>

년도	학기	상담 참여 교수	상담 학생 수	만족도(5점)
2014	1	1명	202명	4.1
	2	1명	96명	4.3
2015	1	2명	101명	4.7
	2	2명	103명	4.6
2016	1	3명	138명	4.7
	2	4명	96명(2016.10. 기준)	4.7

글쓰기교실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상담에서 또 다른 특이점은 '글쓰기 자가 체크리스트'이다. 학생의 요청이 있지만 상담시간이 맞지 않아 상담이 어려운 경우 글쓰기교실에서는 학생에게 글쓰기 자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학생은 자신의 글을 보고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담당 연구원이나 조교에게 설명한다. 그런데 자가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독서에세이 쓰기'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글쓰기교실에서 추구하는 독서에세이는 그 자체로 완성도 있는 글이 아니라 학습자의 사유가 충분히 표현된 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에게 글쓰기 자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이유는 학습자가 자신의 글의 객관적 독자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객관적

시각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학습자는 기존의 작가로서의 시선과는 다른 독자로서의 시선을 획득하게 되고, 이러한 시선에서 글의 개선방안을 찾음으로써 상담이나 첨삭을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글쓰기교실에서 제공하는 글쓰기 자가 체크리스트 항목이다.

<글쓰기 자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수정 방법
주제 및 내용	1. 주제의 선명성 -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2. 조사의 충분성 - 글쓰기 화제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졌는가.		
	3. 분석의 타당성 -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분석한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한가.		
	4. 논거의 적절성 - 글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이 논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5. 인용의 정확성 - 자료에 대한 인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인용에 대한 표시들이 바르게 이루어졌는가.		
	6. 글의 참신성 - 글의 주제나 내용, 표현이 참신한가. - 진부한 내용이 있거나 상투적 표현이 있는가.		
글의 구성	1. 글의 통일성 - 단락과 단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가. - 각 단락은 글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2. 글의 개요 - 글의 구성 및 배열이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글의 세부 단락	1. 단락의 통일성 - 글의 단락은 알맞은 소주제문을 가지고 있는가.		
	2. 단락의 응집성 - 단락의 문장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문장의 짜임새 및 어휘 표현	1. 글의 응집성 - 접속어나 지시어가 자연스럽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가. - 지시어의 지시대상이 없거나 불명확하지 않은가. - 접속어의 논리적 관계가 정확한가.		
	2. 문장의 명료성 - 문장은 글쓴이의 생각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3. 문장의 정확성 - 길고 복잡한 문장이 있지 않은가. - 문장의 주어 서술의 관계는 명확한가. - 중의적 문장, 모호한 문장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 외국어 번역 투의 문장은 없는가.		

배재대학교 글쓰기교실의 글쓰기 상담 시스템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내부적으로는 지표 향상을 위하여 상담 학생 수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글쓰기 상담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독서에세이를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1학년 학생들이고,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라는 점에서 현재의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글쓰기 상담 시스템이 획기적인 변화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전문가로 구성된 인적 인프라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는 학교의 예산 투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4) 튜터 교육 프로그램[12)]

배재대학교의 '독서에세이 쓰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글쓰기 튜터링 제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 튜터링 제도와 이들을 양성하는 체계적인 튜터 교육 프로그램은 배재대학교 글쓰기교실이 자랑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이다.

2014년 글쓰기교실이 개소할 당시 글쓰기 튜터들은 3번 정도의 특강을 듣고 첨삭 업무를 수행하였다. 글쓰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튜터들의 첨삭은 형식적 첨삭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첨삭의 질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글쓰기교실에서는 2014년 여름방학부터 튜터 교육을 시작하였다. 2014년 여름방학 튜터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글쓰기와 관련한 특강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튜터들의 자발적 워크숍이었다. 2014년 1학기를 마치고 튜터들은 자신들의 첨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첨삭의 질을 제고하고자 자발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은 신입생들이 독서에세이를 쓸 때 가장 많이 읽는 도서를 선정하여, 해당 도서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튜터 교육이 큰 변화를 맞이한 것은 2015년 여름방학이었다. 글쓰기 튜터들에 대한 지원 폭이 확대되면서 방학 중 튜터 선진화 교육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다음 학기에 활동할 글쓰기 튜터를 직전 학기에 미리 선발하여[13)]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전문성을 기름으로써[14)] 튜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튜터 선진화 교육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튜터 학생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 및 의

---

12) 2.1.3.은 위에 제시된 <독서에세이 쓰기 로드맵>에서 ③에 해당하는 논의이다.

13) 배재대학교 글쓰기교실 튜터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직전학기 평점이 4.0 이상인 자
- 교내 글쓰기 관련 교과목을 하나 이상 이수하고 학점을 A+ 이상 받은 자
- 교내 및 교외 문학 및 글쓰기 대회 입상자

글쓰기 튜터는 위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글쓰기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방학기간에 실시되는 8주간의 튜터 선진화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14) 대학 글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지방 사립대의 재정적 여건 상 글쓰기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학부생 글쓰기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글쓰기 튜터들의 전문성을 기르는 일이었다. 배재대학교에서는 이러한 글쓰기교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방학 중 튜터 선진화 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방학 중 튜터 선진화 교육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사소통 역량 강화이다. 글쓰기 튜터 역시 본교의 학생이며, 학교가 역량을 키워주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둘째, 숙련된 글쓰기 동료로서의 글쓰기 첨삭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글쓰기 튜터의 주요 활동 내용이 1학년 신입생들의 독서에세이를 첨삭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본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튜터 선진화 교육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교육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튜터들도 '독서에세이 쓰기'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다. 튜터 선진화 교육에 참여하는 튜터들은 필수적으로 2주에 1권 이상의 책을 읽고 독서에세이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제출한 글은 담당 조교의 분배에 따라 2명 이상의 튜터가 첨삭을 실시한다. 튜터들 간 첨삭이 끝나면 해당 파일을 바탕으로 자신의 글을 수정한다. 그리고 수정한 글은 글쓰기교실 지도 교수의 피드백을 최종적으로 받게 된다. 모든 튜터들은 방학 중 이 과정을 3회 반복한다. 즉 모든 튜터는 방학동안 3권의 책을 읽고, 3편의 글을 쓰며, 6번의 첨삭을 하고, 또 6번의 동료 첨삭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튜터들은 작가로서의 글쓰기와 독서로서의 글쓰기를 경험하게 되고, 글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독서에세이 쓰기'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튜터들의 내적 성장이다. 이는 배재대학교 글쓰기교실이 추구하는 글쓰기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글쓰기 첨삭 워크숍이다. 앞에서 서술한 '독서에세이 쓰기' 교육은 6주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지만 글쓰기 첨삭 워크숍은 모든 튜터들이 대면한 상태로 이루어지며, 글쓰기 담당교수와 연구원, 조교 역시 필수적으로 참여한다.

글쓰기교실의 지도교수와 연구원, 조교는 첨삭 워크숍을 실시하기 전 본교 1학년 학생들의 글에서 많이 나타나는 대표성을 띤 글을 선별하는데, 이 글을 각자 첨삭해오는 것이 워크숍 기간의 튜터 과제로 부여된다. 즉 튜터들은 하나의 같은 글을 각자 첨삭하고, 이 첨삭은 조별 모둠 회의를 통해 비교·대조하고, 서로의 첨삭을 평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 조별 결과물은 전체 워크숍 시간에 다시 논의하여 비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첨삭 수준의 균질화이다.

같은 글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보는 사람과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데는 타인의 생각을 확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글을 첨삭하는 입장에서는 자칫 나의 생각이 옳다는 자만감에 빠질 수 있는데, 배재대학교 글쓰기교실에서는 이러한 첨삭자의 자만심을 경계해야한다고 본다. 즉, 글쓰기 첨삭 워크숍은 글쓰기 첨삭자로서 지녀야 할 겸손을 획득하고, 글쓰기에는 정답이 없음을 인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가장 나은 첨삭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2주간의 오프라인 교육 기간에는 이러한 첨삭 워크숍을 5회 이상 갖고, 10개 이상의 학생 글을 첨삭한다. 이때 합의된 사항이 다음 학기 글쓰기교실 첨삭의 가이드가 된다. 실제 <사고와표현>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자와 글쓰기교실 운영진 간에 합의된 가이드가

있고, 그것을 튜터들에게 안내하긴 하지만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즉, 글쓰기 첨삭의 가이드는 매 학기 모든 튜터가 합의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결과물인 것이다. 워크숍에서 완성된 첨삭 가이드는 튜터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첨삭에서도 매우 잘 지켜지며, 이는 첨삭의 균질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첨삭의 균질화는 학습자들이 튜터들의 첨삭을 신뢰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다.

2015년 여름방학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3회의 튜터 선진화 교육 글쓰기 첨삭 워크숍에서 합의된 첨삭 방향은 다음과 같다. 앞선 교수자들 간에 정한 첨삭의 가이드는 첨삭에 임하는 튜터들의 자세나 마음가짐과 관련된 것이 많은 반면 튜터들 간에 합의하는 첨삭 가이드는 훨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특징을 보인다.

- 학생의 글에서 반드시 2개 이상의 구체적 칭찬을 할 것. 칭찬할 부분을 찾기 어렵다면 글쓰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글쓰기를 처음 시작한 것만으로도 훌륭하다는 격려를 할 것.
- 문법적인 교정은 교정부호로 제한할 것. 비문은 문제의 원인과 수정 방향 및 수정 사례를 제시해주지만 1회에 그칠 것.
- 학생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칭찬할 것. 그리고 이후 다양한 방향으로의 생각의 확장을 유도할 것.
- 첨삭의 양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오히려 학습자가 위축할 수 있으니 메모는 6개를 넘기지 말 것.
- 글쓰기의 기초가 잡혀 있지 않은 경우 글의 형식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짚어줄 것. 반드시 형식적인 틀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좋은 글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줄 것. (제목 짓기, 단락 나누기, 서론-본론-결론의 구성 갖추기 등)
-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춘 글이라면 내용과 관련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 이때 어조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는 형식을 취할 것.
- 줄거리 중심의 독서에세이라면 학습자의 생각이 중요함을 강조할 것.

그리고 마지막은 문법 및 문장 교육이다. 글쓰기교실에서는 아무리 좋은 내용의 글이라도 올바른 형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독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초 맞춤법 교육과 더불어 올바른 문장 쓰기 및 효과적인 문장 쓰기 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는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지만 시험을 통해 튜터들의 문장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위 세 가지 방식의 교육은 튜터 선진화 교육마다 변하지 않는 교육 방식이다. 이외에도 1회 이상 글쓰기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튜터들의 글을 첨삭지도하거나 독서토론이나 영화 비평과 같은 인문학적 사유 확장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글쓰기교실에서는 이러한 8주간의 교육을 모두 성실히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튜터로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된 튜터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자부심이 높고, 후배들의 글쓰기 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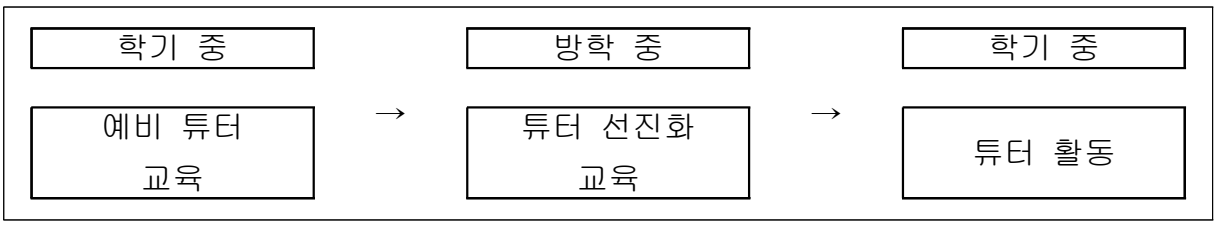
터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다.

이러한 튜터 선진화 교육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튜터들의 첨삭 능력 강화를 통한 신입생 독서 에세이 첨삭의 질 제고이다. 체계적인 과정에 따라 첨삭 교육을 받은 튜터는 숙련된 글쓰기 동료로서 신입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이러한 효과는 학생들의 첨삭만족도 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둘째, 우수 학생의 양성을 통한 교내 안항 교육의 실현이다. 우수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롤모델로 작동하며, 이는 교내 학습 분위기 형성에 기여한다.

글쓰기교실에서는 위와 같은 방학 중 튜터 선진화 교육 외에도 예비 튜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때의 대상자는 글쓰기에 관심이 높은 학부생으로 학기 별로 2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여 주 1회 10주간 교육을 실시한다. 한다. 예비 튜터 교육과정 역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독서, 토론, 글쓰기 교육으로 구성되며, 이 때 우수한 역량을 보인 학생이 다음 학기 튜터로 추천된다.

이러한 배재대학교 글쓰기교실의 튜터 교육 제도는 우수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우수 학생을 다시 내부 교육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교내 학습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의의가 있다. 이상의 글쓰기교실 튜터 교육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글쓰기 튜터 교육 과정>



2.1.4. 독서에세이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15)]

<사고와표현> 연계 '독서에세이 쓰기'가 글쓰기교실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파생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생들의 독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구에 응대하기 위해 배재대학교에서는 2015년 읽기교실을 개소하였다. 그리고 글쓰기교실과 읽기교실 이 두 시스템은 서로 긴밀히 공조하며, 교내 독서 및 글쓰기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중인 비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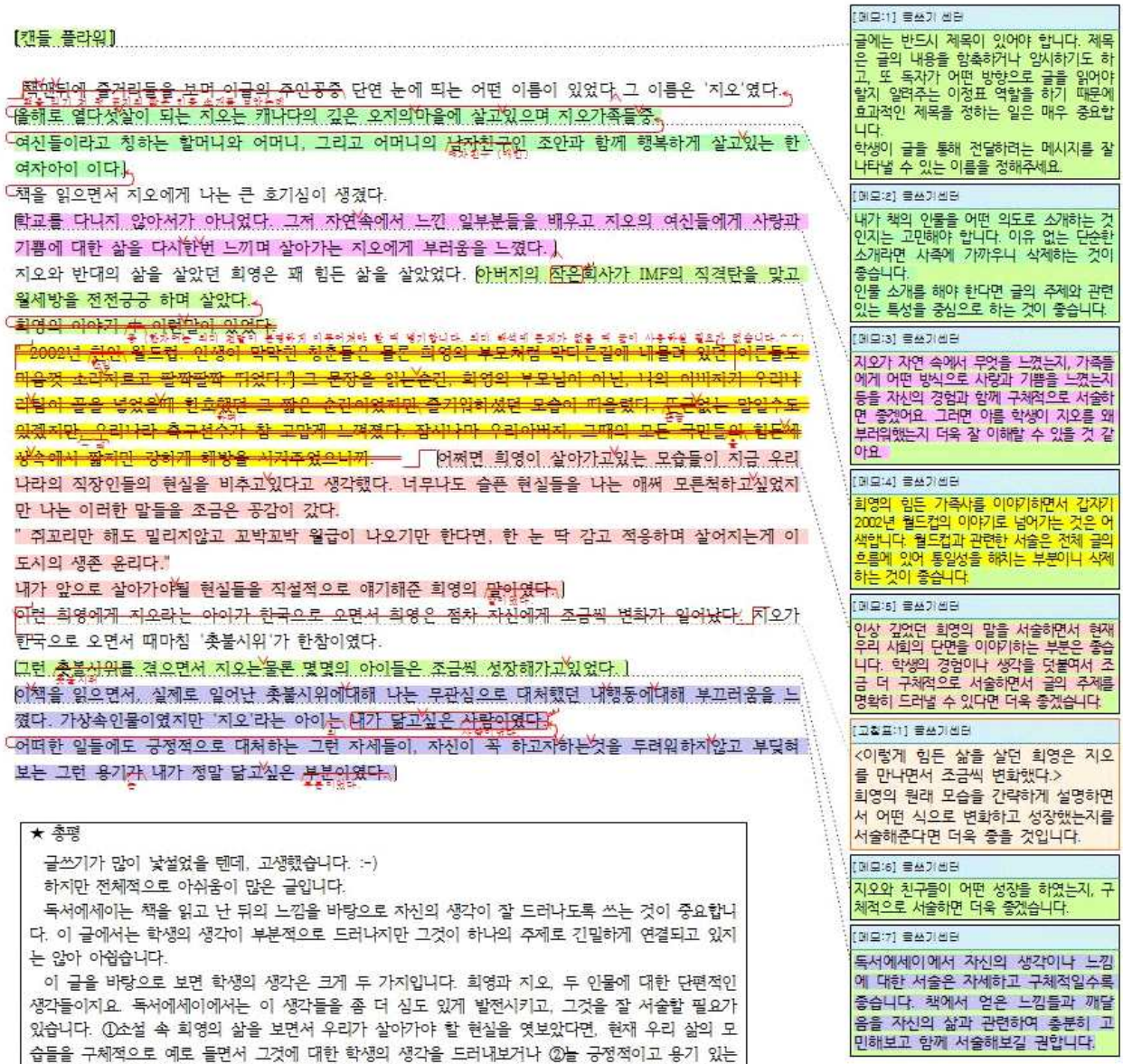
15) 2.1.4.은 위에 제시된 <독서에세이 쓰기 로드맵>에서 ④에 해당하는 논의이다.

< 의사소통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

번호	프로그램 명	내용
1	에월루티오 읽기인증	한 학기동안 3권의 책을 읽고, 워크북을 작성하고, 1번 이상의 창의적 활동을 수행해야 함. 모든 활동을 마친 후 결과물을 제출하면 해당 활동에 대해 인증함.
2	독서클럽 한힌샘 책다방	정해진 주제에 따라 10주간 3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 및 창의적 활동을 진행함.
3	배재 북 쉐어링	교내 구성원 간 자신의 책을 공유하여 바꿔 읽음. 공유 전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편지를 써야하며, 그 책을 빌려 읽은 사람은 반드시 답장을 써야 함.
4	주시경 대학생 토론대회	정해진 주제에 따라 토너먼트식 토론을 진행
5	주시경 대학생 독서에세이대회	자유 주제의 독서에세이로 예선을 거쳐, 백일장 형식의 본선을 진행함. 본선에는 단편 소설 분량의 텍스트를 제공하고, 해당 텍스트를 읽고 난 뒤의 자신의 사유과정을 원고지에 작성함.
6	리포트 작성법 특강	학부생을 대상으로 리포트 작성에 대한 형식을 교육함
7	교외 토론대회 출전	교외에서 열리는 토론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모여 준비하고, 글쓰기교실에서는 이들 토론 준비 과정을 지원함

5. '독서에세이 쓰기'의 효과

먼저 배재대학교 글쓰기교실에서 진행하는 첨삭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첨삭 사례는 1학년 신입생이 작성한 독서에세이를 글쓰기 튜터가 첨삭한 것이다. 초고를 살펴보면 형식적으로 글의 제목, 단락, 문장, 맞춤법, 표현, 분량 등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발견된다. 또한 내용도 역시 통일성 없이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튜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발전방안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글쓰기에 미숙한 필자를 격려하며 꾸준한 글쓰기를 유도하고 있다.



<독서에세이 첨삭 사례>

해당 첨삭을 받은 학생은 첨삭한 글을 들고, 정말 글쓰기교실을 찾아와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래서 2번의 글쓰기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에 제시하는 글은 튜터의 첨삭과 글쓰기 상담을 을 바탕으로 학생이 자신의 글을 최종적으로 수정한 사례이다.

촛불을 드는 사람

김선우의 『캔들 플라워』를 읽고

캐나다의 깊은 오지 마을에서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여자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살고 있는 지오가 나는 매우 흥미로웠다. 학교와 집, 학원만을 오가던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연 속에서 공부를 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다. 지오의 도전적이고 당당한 모습들이 괜히 나랑 비교되는 느낌이었다. 나도 지오처럼 자랐으면 지오처럼 당당할 수 있었을까?

나의 모습은 오히려 희영이와 비슷했다. 가난한 집에서 전전긍긍하게 살아가는 모습, 괜히 기죽어있고 어디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말이다. 그래서 "쥐꼬리만 해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기만 한다면 한 눈 딱 감고 적응하며 살아지는 게 이 도시의 생존윤리다"라는 희영이의 말이 공감되면서도 슬펐다. 애써 모르는 척 하고 싶었다. 그것이 꼭 내 미래 같았다.

그래서 난 소설 속의 희영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보고 희망을 느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느라 다른 사람은 살펴보지 못하던 희영이가 조금씩 주변을 돌아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소심하고, 어디에 잘 나서지도 못하는 내가 변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점에서 지오는 대단했다. 언제나 주변을 돌아봤고, 긍정적이고 용기가 있었다. 어떤 일을 하던지 긍정적으로 부딪히는 용기가 어디서 나는 건지, 그런 지오의 모습을 꼭 닮고 싶었다.

사실 난 사회에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촛불집회가 일어나도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냥 내 걱정을 하면서 살기에도 너무 바빴다. 그런데 아니었다. 난 이 소설을 읽으며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았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이 진정으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나는 앞으로 기꺼이 작은 촛불을 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학생이 완성하여 제출한 글을 살펴보면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주 훌륭한 글은 아니다. 하지만 능동적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미숙한 학습자가 첨삭과 상담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다. 초고와 수정 글을 비교

했을 때 개선된 점은 첫째, 글의 형식적 문제를 대부분 해소했다는 점이다. 일단 표현적으로 글의 제목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단락도 잘 나누어져 있다. 문장도 단문으로 바뀌면서 비문이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띄어쓰기나 맞춤법도 잘 지켜지고 있다. 둘째 소설의 인물과 학습자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튜터의 총평을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글이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역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라는 조언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글을 마무리할 때 상징적 의미가 담긴 문장을 사용할 만큼 문장 수준이 높아졌다. 이것은 학습자가 글을 쓰는 데에 있어 단순히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만을 구사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수사적 맥락 안에서 어떤 문장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학생이 고민한 흔적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독서에세이 쓰기'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글이 이처럼 큰 폭의 질적 향상을 보이는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글쓰기교실 첨삭 만족도 조사에서 드러난다. 글쓰기교실에서는 매 학기 <사고와표현> 수강생 전체를 대상으로 첨삭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16] 2014년 1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2015년 글쓰기교실 첨삭에 만족하였습니까?'라는 설문의 결과에 응답비율은 다음과 같다.

<글쓰기교실 첨삭 만족도 조사 결과>

	2014-1	2014-2	2015-1	2015-2	2016-1
응답인원	1026명	644명	957명	704명	947명
1. 매우 만족	16.2%	14.8%	20.1%	37.3%	54.28%
2. 만족	55.0%	52.6%	55.0%	40.7%	32.84%
3. 보통	24.3%	28.7%	20.9%	17.4%	11.62%
4. 불만족	3.6%	2.6%	2.4%	1.0%	0.63%
5. 매우 불만족	0.8%	0.5%	0.3%	0.3%	0.63%
6. 미응답			1.3%	0.8%	

16) 2014-2015년에는 <사고와표현> 수업시간을 활용한 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학생의 성적공람기간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첨삭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글쓰기교실의 첨삭 만족도에 대한 지표가 상승하고 있음을 뚜렷이 알 수 있는데, 이는 글쓰기 튜터 교육과 상담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첨삭과 상담이 고도화되고 동시에 균질화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는 주관식 설문 문항에서 더욱 자세히 드러난다. 그 중 몇 가지의 응답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무엇보다 친절한 말투가 감동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갖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 어설프지만 글을 길게 써 본 경험도 처음이었고 누군가에게 글을 보여준다는 것도 처음이어서 피드백을 받기 전에 많이 두려웠는데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쓴 글을 꼼꼼히 읽고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앞으로 자주 글을 쓰게 될 것 같고, 자주 피드백을 받고 싶다.
-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처음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 내가 봐도 부족한 글인데 잘 썼다고 칭찬을 해주니 부끄럽다. 그래도 글쓰기를 조금은 좋아하게 될 것 같다. 첨삭해주신 튜터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학교 다닐 땐 인터넷을 보고 쓰고 그랬었는데 자유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긴 글을 쓴 것도 너무 놀라웠고 그런데 튜터 선생님들이 좋은 표현이 있다고 칭찬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도 자주자주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 글쓰기로 칭찬을 받다니!!! 너무 설레고 기뻤다.
- 다른 사람이 나 글을 자세히 읽어준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 아는 사람한테 보여주기 민망한 글인데 모르는 사람이 글을 읽어주니 마음이 좀 편하다. 그렇게 내 글에 대한 장점도 찾아주고, 고민에 대한 대답도 해주니 완전 1석 2조이다.
- 위로받을 곳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하다.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이런 느낌인지 몰랐다. 튜터 선생님이 이야기한대로 앞으로 책도 많이 읽고 또 글 써서 피드백을 받아야겠다.

이상의 독서에세이 사례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독서에세이 쓰기' 교육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독서에세이 쓰기’ 프로그램은 대학 학술적 담화공동체에 진입한 신입생들이 글쓰기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초교육으로서 효과가 있다. 학습자는 ‘독서에세이 쓰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그를 바탕으로 사유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사유를 문장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초 글쓰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독서에세이 튜터링을 통해 한 편의 글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신입생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성공 경험을 얻게 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구축하게 한다. 또한 튜터들은 좋은 선배의 롤 모델로서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

셋째, 튜터 피드백을 통한 대학 구성원 간의 공감의 장을 확장하는 데 효과가 있다. 글쓰기를 통한 선배와 후배와의 소통은 대학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고, 이는 교내 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효과를 종합해 볼 때 ‘독서에세이 쓰기’는 학습자의 주체적 사유를 도모하고, 타자와의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를 발휘함을 알 수 있다. 즉 ‘독서에세이 쓰기’는 학습자와 튜터, 양쪽의 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글쓰기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Ⅳ. 결론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수용자가 아닌 창출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사회에 진입한 후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 상황에 대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 현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대학 교양 교육의 심화를 촉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17] 이에 대학들은 대학 교양교육의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의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부분이 대학 글쓰기 교육이다. 대학 글쓰기는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와 학술적 글쓰기 능력을 필요로 하는 대학의 요구가 상통하면서 관련 교과목들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전담부서가 운용됨으로써 대학 글쓰기 교육의 양적·질적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글쓰기 관련 교과의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3 분류로 나눌 수 있다. 1학기에 2-3학점의 기초 글쓰기 교과를 운영하는 경우, 1학기에 2-3학점의 계열별 글쓰기 교과를 운영하는 경우, 2학기 이상 글쓰기 교과를 운영하면서 글쓰기 교육 로드맵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대학의 글쓰기 교육은 장기적 안목으로 로드맵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교육 및 관리가 되고, 그것을 글쓰기 전담부서에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을 실제적으로 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필 과목을 운영하는 것은 대학의 물리적인 운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배재대학교 역시 글쓰기 교과의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은 요구되지만 학교가 처한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그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글쓰기 전담부서이다. 이를 통해 글쓰기 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배재대학교의 교양 글쓰기 관련 교과목은 크게 2개이다.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 글쓰기 교과목인 <사고와 표현>과 3,4학년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글쓰기 과목인 <성공취업글쓰기와토론> 교과목이 그것이다. 이들 교과목을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글쓰기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온라인 글쓰기 첨삭지도, 대면 글쓰기 상담지도, 독서에세이 대회 등을 운영하며 글쓰기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배재대학교뿐만 아니라 지금은 모든 대학들이 교양교육의 질적 재고를 도모하며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바람직한 글쓰기 교육을 위해서는 글쓰기 로드맵 구축을 통한 기초-심화 교육 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글쓰기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글쓰기 교실 혹은 글쓰기 클리닉의 전담 연구원, 튜터 시스템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튜터 등 인력 보강이 이루어져야 글쓰기 교육의 질적 재고가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글쓰기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

17) 최종철, 「한국대학교양교육의 역사와 교훈」, 『교양교육연구』 1권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07, 209면.

<참고문헌>

강미영(2014). 통합 인지적 관점으로 본 쓰기 연구, 박문사.

배재대학교 주시경대학(2014). 글쓰기교실 운영 결과 보고서, 배재대학교 주시경대학.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2015). 글쓰기교실 운영 결과 보고서,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이재승(2001).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과정 중심 접근, 교육과학사.

이창덕 외 3(2007). 삶과 화법, 박이정.

존 켈러, 송상호 역(2014). 매력적인 수업설계;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그리고 만족감, 교육과학사.

피터 엘보(Peter Elbow), 김우열 역(2014). 힘 있는 글쓰기, 토트.

김영희(2010). “자기 탐색' 글쓰기의 효과와 의의; 대학 신입생 글쓰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작문연구(11)*, 한국작문학회, 45-109.

김종규(2015). “글쓰기 심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대학 글쓰기 센터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성균관대학교 재학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인문과학58*,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82-209.

변지선(2016). “컬럼비아대학교 글쓰기 센터의 문제해결방식과 국내대학 글쓰기 센터의 방향에 대한 제언”, *대학작문16*, 대학작문학회, 275-299.

손혜숙(2016)「글쓰기 교과목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 : 한남대학교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교과목을 중심으로」, *대학작문, 17호*, 대학작문학회, 147-175.

손혜숙(2012). “대학 글쓰기의 첨삭지도 사례와 교육적 효과”, *한민족문화연구41*, 한민족문화학회, 417-446.

안미애,김영청,지현배(2013). “맞춤형 첨삭 매뉴얼을 활용한 표준 글쓰기 클리닉-동국대 경주캠퍼스의 ‘표준 글쓰기 클리닉’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작문6*, 대학작문학회, 241-267.

안수현,김현철(2014). “튜터링 프로그램에서의 지도튜터 운영사례 연구:S대학교 튜터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45(3)*,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1-24.

엄성원(2014). “대학 독후감 첨삭 교육과 글쓰기 센터의 연계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8(4)*, 한국교양교육학회, 463-487.

이재현(2015). “우리나라 대학의 글쓰기 교과 운영 실태와 중소규모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글쓰기 교과 운영 방안”, *작문연구27*, 한국작문학회, 119-144.

이희영(2016). “표현주의와 인지주의의 통섭적 글쓰기 연구”, 배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희영(2016) 「대학 교양교육 현장에서의 ‘독서에세이 쓰기’ 프로그램 연구」, *교양교육연구 10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513-541.

임선애(2016). “대학 글쓰기 선진화 교육의 특징과 시사점”, *대학작문16*, 대학작문학회, 29-58.

임선애(2012),「글쓰기와 말하기 교육의 현황과 전망 : 대구가톨릭대학교 <글쓰기와 말하기> 교과목의 경우」, *교양교육연구 6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139-168.

임지연(2013). “자서전적 자기서사 글쓰기의 통합적 효과를 위한 방법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비평문학48*, 한국비평문학회, 313-345.

조미숙(2016),「대학 기초 글쓰기 현황과 개선 방안」,『동남어문논집』42호, 동남어문학회, 271-298.

최종철(2007),「한국대학교양교육의 역사와 교훈」,『교양교육연구』1권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9.

하경숙(2014),「교양교육으로 <말하기와 글쓰기> 과목의 현황 : 선문대학교를 중심으로」,『대학작문』9호, 대학작문학회, 281-304.

<부록> 국내 주요 교양교육기관 현황

번호	대학명	홈페이지
1	KC대학교 교양실용학부(그리스도대)	http://www.kcu.ac.kr/kcua/introduce?menuId=429
2	가야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http://www.kaya.ac.kr/sub01/sub01_03_03_gyoyang.aspx
3	가천대학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http://www.gachon.ac.kr/university/college/culture_intro.jsp
4	가톨릭관동대학교 기초교육대학	http://cms6.cku.ac.kr/user/indexMain.do?&siteId=verum
5	가톨릭대학교ELP학부대학	http://www.catholic.ac.kr/~elp/
6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http://gs.kangnam.ac.kr/index.jsp
7	강릉원주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s://ffe.gwnu.ac.kr/
8	강원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fle.kangwon.ac.kr/index.php
9	건국대학교 교양교육센터	http://sgedu.konkuk.ac.kr/
10	건국대학교(충주) 글로벌 소통-통섭 교육원	http://kyoyang.kku.ac.kr/kyoyang/Pages/default.aspx
11	건양대학교 기초교양교육대학	http://www.konyang.ac.kr/academic/31600300.asp
12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http://www.kyonggi.ac.kr/kguSbjInfo.kgu?mzcode=K00M010000&orgCd=K010101
1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http://www1.gntech.ac.kr/web/cultured
14	경남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http://www.kyungnam.ac.kr/gh/main/
15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fle.knu.ac.kr/
16	경상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fge.gnu.ac.kr/main/
17	경성대학교 창의인재대학	http://cms2.ks.ac.kr/chr/main.do
18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http://hc.khu.ac.kr/v2/
19	계명대학교 교양교육대학	http://web.kmu.ac.kr/liberal/index.html
20	고려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kuweb.korea.ac.kr/ge/
21	고신대학교 교양학부	http://web.kosin.ac.kr/Web/Gyoyang.php
22	공주대학교 기초교육센터	
23	공주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http://www.kongju.ac.kr/organ/organ_view.jsp?idx=182&ref=1

24	관동대학교　교양과	http://www.kd.ac.kr/htm/college/human/cul/intro.jsp?flashActive=003001001
25	광신대학교　교양학부	http://www.kwangshin.ac.kr/sub.asp?ksu=030107
26	광운대학교　교양학부	http://gyoyang.kw.ac.kr/www/index.php
27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http://college.gist.ac.kr/?mid=gist3_1
28	광주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edu.gwangju.ac.kr/main/main.php
29	광주여자대학교　마음나눔교육부	http://maum.kwu.ac.kr/index.es?sid=a1
30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http://culture.kookmin.ac.kr/
31	군산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liberaledu.kr/index2.asp
32	군산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liberaledu.kr/index2.asp
33	극동대학교　교양학과	http://generaledu.kdu.ac.kr/index.do
34	극동대학교　교양학과	http://generaledu.kdu.ac.kr/index.do
35	금강대학교　교양과정	http://www.ggu.ac.kr/kor/colleges/general_edu/process.php
36	금오공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http://latt.kumoh.ac.kr/main.do
37	김천대학교　교양학과	http://www.gimcheon.ac.kr/~culture/
38	나사렛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www.kornu.ac.kr/mbs/kornukr/subview.jsp?id=kornukr_040101020000
39	남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http://ky.nsu.ac.kr/
40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http://www.dankook.ac.kr/web/kor/-150
41	단국대학교(천안)　교양학부	http://www.dankook.ac.kr/web/kor/-325
42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http://dept.cu.ac.kr/user/kyoyang/
43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http://duuc.daegu.ac.kr/main.php
44	대구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liberaledu.daegu.ac.kr/
45	대구한의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www.dhu.ac.kr/korean/HOME/general/main/main.htm
46	대신대학교　교양	https://www.daeshin.ac.kr/pages/info1/?page=info1_menu01_02.jsp
47	대전대학교　H-LAC	http://office.dju.ac.kr/education/
48	대진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general.daejin.ac.kr/

49	덕성여자대학교　교양과정	http://academy.duksung.ac.kr/ged/index.jsp
50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http://generaledu.dongguk.edu/
51	동국대학교(경주)　파라미타칼리지	http://lad.dongguk.ac.kr/
52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http://www.dongduk.ac.kr/contents/main/cor/introduce.html
53	동명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www.tu.ac.kr/default2/sub/subLocation.tu?categorySeq=1000001&menuSeq=100000223&confSeq=&boardSeq=-1
54	동서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uni.dongseo.ac.kr/education/
55	동신대학교　Together교육개발원	https://tedi.dsu.ac.kr/index
56	동아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cms.donga.ac.kr/user/cle/
57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http://www.dyu.ac.kr/04_university/sub01_8.html
58	동의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양과	http://liberal.deu.ac.kr/main.do
59	루터대학교　교양과정	http://ltu.ac.kr/_StyleBox/SubPage/Refinement.php
60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http://bangmok.mju.ac.kr/user/bangmok/index.action
61	목원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liberalarts.mokwon.ac.kr/
62	목포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http://www.mokpo.ac.kr/index.9is?contentUid=402848ef42b36e680142bb9d6cc20217&orgnztId=892
63	목포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http://www.mmu.ac.kr/g1/SubPage.aspx?code=CONTENT20141103115151
64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http://dlae.pcu.ac.kr/
65	부경대학교　기초교양교육센터	http://leed.pknu.ac.kr/ctl/intro/main_form.acl
66	부산가톨릭대학교　트리니타스칼리지	http://liberal.cup.ac.kr/main/main.asp
67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culedu.pusan.ac.kr/
68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교양대학	http://cms.bufs.ac.kr/ccis/html/main/default.aspx
69	부산장신대학교　교양과정	http://bpu.ac.kr/college/cu_course.php
70	삼육대학교　교양학부	http://www.syu.ac.kr/web/teacher/home

71	상명대학교　교양대학	http://k2web.smu.ac.kr/user/indexMain.action?siteId=culture
72	상명대학교(천안)　교양대학	http://smls.smuc.ac.kr/user/indexMain.action?siteId=smls
73	상지대학교　교양과	http://www.sangji.ac.kr/generaledu/index.action
74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http://liberalartsedu.sogang.ac.kr/
75	서경대학교　교양과정부	http://www.skuniv.ac.kr/general_education_course_composition
76	서남대학교　교양과정	http://wtiger.seonam.ac.kr/~n_liberal/home/
7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http://liberal.seoultech.ac.kr/
78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liberaledu.snu.ac.kr/
79	서울시립대학교　창의공공교양교육부	http://liberal.uos.ac.kr/liberal/main.do
80	서울여자대학교　교양학부	http://www.swu.ac.kr/univ/07_bar_0201.html
81	서울장신대학교　교양학부	https://www.sjs.ac.kr/ht_ml/w_02ed/2030.php
82	서원대학교　교양대학	https://www.seowon.ac.kr/web/kor/education_a_05
83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http://foundation.sunmoon.ac.kr/
84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http://wiz.sungkyul.ac.kr/user/general/
85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http://delib.skhu.ac.kr/
86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http://hakbu.skku.edu/
87	성신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	http://www.sungshin.ac.kr/generaledu/
88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http://kyoyang.semyung.ac.kr/
89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http://cm.sejong.ac.kr/user/liberal/
90	수원대학교　교양학부	http://www.suwon.ac.kr/views/university/college/humanities/1186991_1171.html
91	숙명여자대학교　리더십교양교육원	http://gei.sookmyung.ac.kr/
92	순천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https://ctl.sunchon.ac.kr/ctl/?r=wp/index&sso=ok
93	순천향대학교　향설나눔대학	https://homepage.sch.ac.kr/sch/03/03011200.jsp

94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http://www.ssu.ac.kr/web/kor/edu_a_09_01
95	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	http://genedu.silla.ac.kr/
96	신한대학교　교양학부	https://culture.shinhan.ac.kr/culture/
97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양과정	http://www.acts.ac.kr/design/contents10.asp?code=11101410&left=1&sleft=7
98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http://uc.ajou.ac.kr/uc/index.jsp
99	안동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http://ctl.andong.ac.kr/
100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http://www.anyang.ac.kr/ge/
101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http://www4.yonsei.ac.kr/fresh/
102	연세대학교(원주)　교양교육학부	http://www.yonsei.ac.kr/contents/wonuniv/wunivintro8.html
103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http://cbs.yu.ac.kr/index.jsp
104	영동대학교　교양융합학부	http://humanities.youngdong.ac.kr/human/index.html
105	영산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he.ysu.ac.kr/index.asp
106	예원예술대학교　교양학부	http://www.yewon.ac.kr/Department/liberalArts/
107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http://web.woosuk.ac.kr/wiz/user/gyoyong/
108	우송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slas.wsu.ac.kr/main/index.jsp
109	울산과학기술원　기초과정부	https://dgs.unist.ac.kr/kor/
110	울산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http://kr.ulsan.ac.kr/contents/about/organization/staff/Default.aspx?search=belong&belong=11675
111	원광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http://whc.wku.ac.kr/
112	위덕대학교　인성기초교육원	http://pbe.uu.ac.kr/
113	을지대학교　교양학부	http://culture.eulji.ac.kr/
114	이화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home.ewha.ac.kr/~cge/
115	인제대학교　기초대학	http://homepage.inje.ac.kr/~general/
116	인제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양학부	http://homepage.inje.ac.kr/~general/
117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liberaledu.incheon.ac.kr/user/indexMain.do?siteId=liberaledu
118	인하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s://generaledu.inha.ac.kr/
119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fle.jnu.ac.kr/
120	전북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http://fle.jbnu.ac.kr/
121	전주대학교　교양학부	http://gen.jj.ac.kr/

122	제주국제대학교　교양과목교육과정	http://www.jeju.ac.kr/Main/index.php?cid=237
123	제주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http://jile.jejunu.ac.kr/
124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http://www.cslib.kr/
125	중부대학교　교양학과	http://www.joongbu.ac.kr/deptview/sub02_08/0408/view.do
126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http://ge.cau.ac.kr/index.php
127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http://larts.jwu.ac.kr/
128	차의과학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www.cha.ac.kr/ACADEMICS/ACADEMICS_Main.aspx?M_index=1316
129	창원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portal.changwon.ac.kr/home/flec
130	청운대학교　교양학부	http://culture.chungwoon.ac.kr/
131	청주대학교　교양학부	http://www.chongju.ac.kr/web/kor/univ_a_11_01_t1
132	초당대학교　교양교직학부	http://www.cdu.ac.kr/index.do?contentId=KR_03010100
133	총신대학교　교양교직과	http://www.chongshin.ac.kr/mbs/csu/subview.jsp?id=csu_030109010000
134	추계예술대학교　교양학부	http://www.chugye.ac.kr/mbs/university/subview.jsp?id=university_030104010400
135	충남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http://ile.cnu.ac.kr/flow/#loaded
136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http://fole.chungbuk.ac.kr/index.do
137	평택대학교　교양학부	http://www.ptu.ac.kr/content/contents.do?cid=20140311145513563 52&menuId=291#0
138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http://hss.postech.ac.kr/
139	한경대학교　교양학부	http://hkcult.hankyong.ac.kr/
140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http://ge.ut.ac.kr/
14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문리HRD학부	http://cms.kut.ac.kr/user/indexMain.action?siteId=general
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http://bu45.knou.ac.kr/
143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http://subweb.kpu.ac.kr/liberalArt/index.do
144	한국성서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http://www.bible.ac.kr/university/free.aspx

145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http://builder.hufs.ac.kr/user/minervacol/index.action
146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http://las.knsu.ac.kr/web/las/home
147	한국항공대학교　교양학과	http://www.kau.ac.kr/page/web/ct_education/main.jsp
148	한국해양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cle.kmou.ac.kr/prof/
149	한남대학교　교양융복합대학	http://cige.hannam.ac.kr/
150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https://www.handong.edu/major/college/global-leadership/intro/
151	한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http://general.halla.ac.kr/
152	한려대학교　교양과	http://www.hanlyo.ac.kr/hanlyo/ts_hanlyo/sub03/sub03_1_06.php
153	한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http://cge.hallym.ac.kr/
154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http://newclass.hanbat.ac.kr/ctnt/liberal/
155	한북대학교　교양학부	http://www.hanbuk.ac.kr/HanbukDepartment/Default.aspx?dpmCode=163&fidx=253
156	한서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liberal.hanseo.ac.kr/main.do
157	한성대학교　상상력 교양교육원	http://www.hansung.ac.kr/web/www/college_01_05_01_t1
158	한세대학교　교양학부	http://www.hansei.ac.kr/portal/default/homepage/faculty/faculty_39010.page
159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https://www.hs.ac.kr/kor/academics/curriculum_01.php?filtermajor=415000
160	한양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http://gs.hanyang.ac.kr/index.html
161	한양대학교(ERICA)기초·융합교육원	http://gen.hanyang.ac.kr/
162	한영신학대학교　교양학부	http://www.hytu.ac.kr/hy_main/03_department/liberal.html?ov=1
163	한중대학교　교양학과	http://test.hanzhong.ac.kr/subpage/hz_3_6_1.aspx?hzmenu=3
164	협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http://college.uhs.ac.kr/lib/
165	호남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gyoyang.honam.ac.kr/gyoyang/
166	호남대학교　교양학부	http://gyoyang.honam.ac.kr/gyoyang/
167	호서대학교　교양·교직학부	http://www.hoseo.ac.kr/CmsHome/depart07_01.eznic
168	호원대학교　교양교육원	http://www.howon.ac.kr/_gyo/edu/?lm=2&sm=1

169	홍익대학교　교양외국어학부	http://home.hongik.ac.kr/college/college_16.php
170	홍익대학교(세종)　교양외국어학부	http://home.hongik.ac.kr/college/college_17.php